**범사에 감사**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에 관한 말씀을 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성경에서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진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10명의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던 길을 돌이켜 감사하러 나온 것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 뿐이었습니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라는 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참으로 경탄할 만큼 감사가 없다. 인간에 대한 가장 어울리는 정의는 감사를 모른 채 두 발로 걷는 짐승일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고 싶은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의지를 드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매순간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이 감사의 삶 속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독일의 어느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끼니를 잇지 못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비교적 살림이 넉넉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어린이들을 굶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침마다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빵을 하나씩만 가져가렴"  
어린이들은 더 큰 빵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었지만  
아무도 노부부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남은, 작은 빵을 가져가며   
매일 노부부에게 공손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노부부는 소녀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빵 속에서 금화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보다 쉽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이끕니다.

나병을 치유받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함께 병을 치유받은 다른 아홉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예비된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건져줍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것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그것을 잃지 않고자, 혹은 더 갖고자, 그것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그 농경사회 속에서 풍요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풍요는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우리가 태평한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그러한 풍요와 번영을 우리 스스로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미혹된 생각은 우리를 어리석은 교만에 빠뜨리고,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며, 결국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미 수세기 전에 모세는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권면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시편 기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 주겠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이 땅의 유한한 것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갇혀져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넘어 이웃과의 화목을 낳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의 성격은 ‘나눔’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모두 태워져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소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달랐습니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고, 그 나머지는 제사드리는 사람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제사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별되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원할 때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제사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와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이 규칙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쌓아 놓고 썩는 한이 있어도 혼자 독식하려 할 것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500근 이상이 남는다 합니다. 이 많은 양을 하루만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과 나누어 먹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나눔의 실천 속에서 공동체 안에 화목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넘어 이웃과의 화목을 낳습니다.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질 때, 그 나눔은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감사는 은혜를 더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평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내가 드리는 감사, 그리고 내가 나누는 감사가 공동체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 굳이 억지로 감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몸에는 종기가 나서 고통을 겪고,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나라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벨론을 들어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너무 놀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마침내 그는 고백합니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속성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소위 감사 시편으로 불리는 136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각 절의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그 감사의 근거를 덧붙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바로 이런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왕 외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변치않는 속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근거가 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속성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에 감사를 위한 근거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뿐입니다. 하지만 자족은 모든 것을 가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함으로써 생겨납니다.

이 자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내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만족을 조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반면, 내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가꾸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족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여러 번 간구했던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줍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넘어 이웃과의 화목을 낳습니다.

한편,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 믿음의 좌표를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에 고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속성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바로 이 신뢰와 자족의 마음 위에서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감사하기로 선택하십시다. 우리의 신뢰와 만족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